

학생의 진로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박선주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Extracurricular Programs by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Seon-Joo Park

Dept. of Vocation,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약 본 연구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K대학교 학생의 진로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변인에 따른 유형별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유형에 맞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재학생 1,992명과 신입생 1,450명이 진로유형 검사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재학생과 신입생에서 이상적인 유형, 진지하지 못한 유형, 미성숙한 유형, 행동지향적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 단과대학에 따라 진로 유형이 유의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54점, 2021년 4.53점으로 높았다. 진로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탐색장애, 진로상담, 진로정체감, 진로장벽, 성격, 진로서비스요구 등의 변인에 따른 이차원적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 분류체계는 내용에 따라 1.1 자기이해, 1.2 직업탐색, 2.1 직무역량/직업기초역량, 2.2 취업전략으로 분석하였고, 난이도는 기초와 심화 단계로 분류하였고, 활동유형은 강의형, 상담형, 파견형, 참여형으로 분류하여 이원분류표로 제안하였다. 실무담당자의 타당성 검증을 종합하여, 'A유형' 7개[1.2/1개, 2.1/3개, 2.2/3개], 'B유형' 10개[1.1/2개, 1.2/2개, 2.1/3개, 2.2/3개], 'C유형' 12개[1.1/1개, 1.2/1개, 2.1/5개, 2.2/5개]와 마지막으로, 'D유형'은 15개[1.1/3개, 1.2/2개, 2.1/5개, 2.2/5개]의 대학생 진로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areer types of K University students using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iagnosis tools, and to analyze previous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ccording to the major variables. The study sought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extracurricular programs suitable for each type. A total of 1,992 students and 1,450 freshmen participated in th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career type. Both students and freshmen were classified as 'Ideal', 'Pseudo', 'Immature', and 'Behavioral' Types. The career types were not significantly classified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college. The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showed that satisfaction was high at 4.54 points in 2020 and 4.53 points in 2021. To provide extracurricular programs suitable for each career type, previous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wo-dimensional typology according to variables such a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exploration disorder, career counseling, career identity, career barriers, personality, and career service needs, wer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classification system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1.1 Self-understanding, 1.2 Vocation Search, 2.1 Job Competence/Vocational Key Competence, and 2.2 Employment Strategy, and the difficulty was divided into Basic and Advanced stages. The activity types were classified into Lecture, Counseling, Dispatch, and Participation Types, and proposed as a two-way classification table. After combining the validity verification of researchers, 7 "A Type" [1.2/1, 2.1/3 and 2.2/3], 10 "B Type" [1.1/2, 1.2/2, 2.1/3 and 2.2/3], 12 "C Type" [1.1/1, 1.2/1, 2.1/5 and 2.2/5], and finally, 15 "D Type" [1.1/3, 1.2/2, 2.1/5 and 2.2/5] were proposed and plans to improve extracurricular programs were suggested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ir career type.

Keywords :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tracurricular Program, Classification System, University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Seon-Joo Park(Dept. of Vocation,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email: kokstart@naver.com

Received March 18, 2024

Revised April 11, 2024

Accepted May 3, 2024

Published May 31, 20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 시기는 진로와 자아정체감이 발달 되는 청소년 후기와 직업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학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서 초·중·고등학교 시기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한다. Erikson[1]의 발달단계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발달과제는 자아 정체감 획득과 진로 결정이지만, 실제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결정은 대학 재학 기간인 성인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진로 성숙과 더불어 진로에 적합한 역량의 발달을 이루어 가는 것이 대학생의 중요한 발달과제라고 볼 수 있다[2]. 대학 과정은 입학에서 사회진출 사이를 연결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의 진로 유형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들의 역량을 선정하여 교양을 비롯한 비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자가 요구하는 개인의 진로서비스라기 보다는 대학교육을 통해서 길러져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진로유형에 기반한 역량을 훈련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학생 스스로가 함양 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직업인으로서 첫 전환을 앞두고 취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대학기간 동안 진로미결정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3]. 진로를 결정했다면 현재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과 졸업 후에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 분야의 선택까지도 할 수 있다. 직업을 얻기 위해서 대외 관련 경험과 인턴십, 면접준비와 같은 별도의 준비도 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은 진로결정과 더불어 최선의 진로준비행동을 요구한다.

진로결정수준은 발달해 있는데 진로준비행동이 부진하거나 혹은 진로준비행동은 앞서가는데 진로결정수준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다. 대학에서 제공되는 진로상담 서비스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발달수준과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4]. 대상마다 필요한 진로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5]. 대학생의 진로서비스 요구분석에 대한 연구결과[6]에 따르면 진로발달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구분 된 반면, 학년

별, 전공계열별 특성에 따른 진로서비스 요구도 차이는 유의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서비스가 학년별, 전공계열별 접근보다 진로유형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이차원적 진로유형 진단은 진로상담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에서 전공 또는 교양 교과과정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진로를 계획하고 직업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많은 대학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로 준비도에 따른 특성과 그에 따른 비교과 진로 및 취업 교육과정을 개발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진로유형 진단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로유형별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진로유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을 기반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이차원적 유형화를 토대로 진로유형별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에 따라 적합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수요자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것에 목적을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유형 진단에 따라 학생의 진로유형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선행연구 요인에 따른 진단유형별 특성은 무엇인가?

넷째, 연도별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어떠한가?

다섯째, 비교과 프로그램 분류체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여섯째, 대학생 진로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분류체계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유형

2.1.1 진로결정수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란 진로결정을 해야 하는 결

정적인 시기에 자신의 전공 및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자신의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은 진로결정의 진행수준과 진로에 대한 확고함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의 향상은 대학생 시기에 개인의 발달과업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대학생 시기는 현실기의 구체화 단계와 전문화 단계로 능력과 흥미가 통합되며[7], 탐색기의 전환기와 시행기로 자아를 검증하고 선택의 폭을 좁혀 시험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8]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직업목표를 구체화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받아서 직업에 입문하는 과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한 Kim[9]은 진로준비행동을 진로목표 설정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행하는 다양한 준비활동으로 정의하였다[10].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소는 3가지로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실천적 노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보수집활동이란 자신에 대한 능력, 적성, 흥미 등과 관심이 있는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의미한다[11]. 둘째, 도구구비활동이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도구를 갖추는 작업으로, 자신이 바라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것과 각 직업군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12]. 셋째, 목표달성활동이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서 나타내야 하는 행동이나 진로를 결정한 이후 결정사항을 실행하려는 행동이며, 자신이 직업을 얻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13].

2.1.3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유형화 연구

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1], 같은 변수일지라도 개개인마다 다양한 양상이 드러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진로결정수준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진로결정수준이 낮으면, 제대로 된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4,15].

Kim[9]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두 차원에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네 가지 A, B, C, D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진로준비행동이 활발

한 A유형은 합리적인 사고를 거쳐서 확실히 진로를 결정한 가운데 그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상적인 유형(Ideal Type, 이하 A유형)을 말한다. 진로결정 수준은 높으나,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B유형은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 내보이지 못하는 진지하지 못한 유형(Pseudo Type, 이하 B유형)을 말한다. 진로결정수준은 낮고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C유형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감이 없으나 진로와 관련하여 무엇인가 활발히 추구하는 행동지향적 유형(Behavioral Type 이하, C유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서 둘 다 낮은 D유형은 진로에 대한 뚜렷한 방향감도 실제적인 행동도 매우 낮은 미성숙한 유형(Immature Type 이하, D유형)이라고 하였다[10].

학년별, 전공계열별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 진로서비스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진로 서비스 요구도 차이가 유의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로발달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서비스는 학년별, 전공계열별 접근보다 진로발달단계별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6].

2.2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념과 체계

2.2.1 비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정규 교육과정 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비교과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학업 또는 비학업 활동으로써 성적이나 학점이 부여되지 않고 학생의 선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16].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교과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 역량 향상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 학생의 진로계획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높이는데 정규 교육과정만을 수행하는 것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다수의 연구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에 대해 학업 성취 및 인지발달[18,19], 심리사회적 발달[20], 개인의 직무능력 개발[21] 등으로 제시되었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진로정보를 수집하고 진로준비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2 진로 교과목의 내용 체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진로교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진로 교과목에 포함할 구성과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진로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진로 이론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Parsons[22]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등에 대한 파악을 뜻한다. 둘째, 직업에 관한 지식이다. 다양한 직업의 자격요건, 장점 및 단점, 급여, 장애전망 등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셋째,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Parsons[22] 이론이 적용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프로그램과 한국고용정보원 CDP-C 진로프로그램[23]은 진로계획 및 준비 단계를 더 추가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을 위해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24].

또한 국내의 연구자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 체계를 가지고 진로교과목을 실시하였다. Yoon[25]은 진로교과목을 구성할 때, 자신의 이해(1-4주), 직업세계의 이해 및 탐색(5-8주), 진로결정 및 선택(9-10주), 진로계획 및 관리능력(11-12주, 14주), 의사결정능력 함양(13주)으로 구성하였다. Han[26]은 자기에 대한 이해(3-4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5-6주), 진로선택 및 결정(8주), 진로계획 및 전략(9-14주)으로 구성하였다.

종합해 보면, 대학에서의 진로 교과목의 내용 구성은 주로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후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내용을 토대로 각자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K대학교의 진로영역과 취업영역으로 분류된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계를 세분화 하였다. 진로영역은 자기이해와 직업탐색으로 분류하였고 취업영역은 직무역량/직업기초역량과 취업전략으로 세분류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3.1.1 진로유형 진단검사

본 연구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K대학교 학생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유형 진단검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취업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2020년 재학생 1,992명과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적응기가 필요한 2021년 신입생 1,450명을 대상으로 진로유형 진단검사를 조사하였다.

3.1.2 비교과 프로그램

본 연구는 K대학교의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 동안 비대면과 대면 교육 환경에서 운영된 진로 및 취업영역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자 12,280명 중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성실하게 만족도를 응답한 총 10,246명(83.4%)의 자료만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1.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문헌분석 및 대학생에 대한 자료 수집을 기초로 진로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한 주요 변인에 따른 진로유형별 특성과 대학생 진로유형을 분석하였다. 둘째, 비교과 프로그램 분류체계와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하여 이원분류표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도출된 비교과 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대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2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실무담당자 5인의 검토를 받았다. 이를 통해 분류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대학생 진로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Table 1].

Table 1. Research Procedures

(Literature study)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haracteristics of each two-dimensional typology
(Statistical analysis) Students/Freshmen career type diagnosis
(Literature study) Extracurricular programs, The content system of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Extracurricular programs classification system
(Statistical analysis) 2020/2021 extracurricular programs satisfaction
(Analysis of results) Improvement plans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classification System
(Validation) 5 Researchers
(Conclusion)The improvement plans of extracurricular programs by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3.2 자료수집 방법

K대학교의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Google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진로유형 진단검사를 시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조사내용과 목적 및 절차를 진단검사 URL과 함께 안내하고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한 최종 표본수를 토대로 연구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K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성실하게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년도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3.3 연구도구

3.3.1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척도는 Osipow[27]가 개발한 진로 결정 검사를 Koh[28]가 우리 문화 실정에 맞게 적절한 표현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2문항의 확신성 요인과 진로에 관한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16문항의 미결정 요인으로 구성되어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채점은 문항 1-2와 문항 3-18을 구분하여 채점하는데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확신 수준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가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Kim[9]의 연구 문항에서처럼 '진로결정수준'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문항 3-18을 역

으로 채점을 하였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29].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의 경우 최저 18에서 최고 72점 사이의 중간 점수 45점보다 높으면 고(high), 낮으면 저(low)로 해석한다. 진로결정수준 척도의 신뢰도는 Osipow[27]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 Koh[3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8이다.

3.3.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검사는 Kim[9]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Lee[30]가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Kim[9]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검사는 진로 혹은 직업을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활동 등의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로 인터넷 진로 정보사이트가 많이 생겨나고 대학교의 진로상담이 활성화되는 현실을 2문항[30]으로 반영하여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18문항으로 검사가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최저 16에서 최고 64점 사이의 중간 점수 40점 보다 높으면 고(high), 낮으면 저(low)로 해석한다.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Kim[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 Lee[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Table 2. Extracurricular Programs

Category	Extracurricular Program	Explanation
Career	Special Lecture for Freshmen	Special lectures on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plan
	Inside Out	Self-analysis counseling using tests
	Career Talk Talk	Q&A for job search
	Career Marvel	Workshop for vocation understanding
	Gorgeous Challenge	Employment competency enhancement contest
	Career Setting Contest	Contest to help one's self-understanding step by step
	Sisters' Job Small Talk	Special lecture on employment competence enhancement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Special Lecture on Overseas Employment	Special lecture on employment education for overseas jobs and enterprises
	Preparation for Public Enterprises	Special lecture on employment strategy for public enterprises
	Alumni Mentoring	Individual mentoring for employment strategies
Employment	Theme Special Lecture on Employment	Special lectures on various themes for employment
	Sisters' Employment Success Package	Mentoring job experience through current female employees
	Interview Clinic	Consulting for individual mock interviews
	Employment Club	Small group meeting to enhancement job competency by sector
	Incumbent Mentoring	Mentoring job experience through the incumbent

3.3.3 비교과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례로 조사한 K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진로와 취업영역으로 구분되어 25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 비대면 교육이 급격히 등장한 2020년과 비대면과 대면 교육이 병행되었던 2021년 2개년 동안 동일하게 실시된 진로영역 비교과 프로그램 6개, 취업영역 비교과 프로그램 9개 등 15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Table 2].

4. 연구결과

4.1 진로유형 진단 분석

2020년도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 1,125명(56.4%), 여학생 867명(43.5%)으로 조사되어 남학생의 비중이 높았으며, 학년은 1학년 1,332명(66.3%), 2학년 256명(12.8%), 3학년 235명(11.8%), 4학년 179명(9.0%)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은 과학기술대학 713명(35.8%), 글로벌비즈니스대학 545명(27.3%), 공공정책대학 425명(21.3%), 문화스포츠대학 297명(14.9%), 약학대학 12명(0.6%) 순으로 조사되었다. 2021학년도

신입생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 905명(62.4%), 여학생 545명(37.6%)으로 조사되어 남학생의 비중이 높았으며, 대학은 과학기술대학 680명(46.9%), 글로벌비즈니스대학 349명(24.1%), 문화스포츠대학 217명(15.0%), 공공정책대학 204명(14.1%) 순으로 조사되었다. 진단결과, A유형은 1,347명, 39.1%(재학생 783명, 신입생 564명), B유형 988명, 28.7%(재학생 526명, 신입생 462명), D유형 700명, 20.3%(재학생 415명, 신입생 285명), C유형 407명, 11.8%(재학생 268명, 신입생 139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성별, 학년, 단과대학에 따른 진로유형이 유의하게 구분되지 않았다[Table 3].

4.2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비교과 프로그램 연도별 만족도는 2020년 4.54, 2021년 4.53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진로영역 만족도는 2020년 4.55, 2021년 4.44, 취업영역 만족도는 2020년 4.52, 2021년 4.61이다. 2020년 대비 2021년 진로영역 만족도는 0.11 낮게 나타났고, 취업영역은 0.09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진로영역 비교과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만족

Table 3. Distribution of Demographic Career Types

Categories		Ideal Type	Pseudo Type	Behavioral Type	Immature Type	Total	$\chi^2(p)$	
Students (2020)	Gender	Male	435(38.7)	322(28.6)	143(12.7)	225(20.0)	1,125(56.4)	7.001 (.059)
		Female	348(40.1)	204(23.5)	125(14.4)	190(21.9)	867(43.5)	
	Grade	1	474(35.9)	414(31.3)	145(11.0)	289(21.9)	1,322(66.3)	13.506 (.193)
		2	94(36.7)	52(20.3)	47(18.4)	63(24.6)	256(12.8)	
		3	112(47.7)	41(17.4)	44(18.7)	38(16.2)	235(11.8)	
		4	103(57.5)	19(10.6)	32(17.9)	25(14.0)	179(9.0)	
	college	Public Policy	178(41.9)	97(22.8)	53(12.5)	97(22.8)	425(21.3)	17.568 (.091)
		Science and Technology	247(34.6)	215(30.2)	85(11.9)	166(23.3)	713(35.8)	
		Global Business	210(38.5)	129(23.7)	92(16.9)	114(20.9)	545(27.3)	
		Cultural Sports	140(47.1)	83(27.9)	38(12.8)	36(12.1)	297(14.9)	
Pharmacy		8(66.7)	2(16.7)	0(0)	2(16.7)	12(0.6)		
Total		783(39.3)	526(26.4)	268(13.5)	415(20.8)	1,922(100)		
Freshmen (2021)	Gender	Male	345(38.1)	301(33.3)	87(19.0)	172(19.0)	905(62.4)	2.367 (.296)
		Female	219(40.2)	161(29.5)	52(9.5)	113(20.7)	545(37.6)	
	college	Public Policy	81(39.7)	61(29.9)	22(10.8)	40(19.6)	204(14.1)	15.774 (.072)
		Science and Technology	233(34.3)	233(34.3)	66(9.7)	148(21.8)	680(46.9)	
		Global Business	149(42.7)	102(29.2)	34(9.7)	64(18.3)	349(24.1)	
		Cultural Sports	101(46.5)	66(30.4)	17(7.8)	33(15.2)	217(15.0)	
Total		564(38.9)	462(31.9)	139(9.6)	285(19.7)	1,450(100)		
Total		1,347(39.1)	988(28.7)	407(11.8)	700(20.3)	3,422(100)		

도는 고저스캘린지 4.84, 진로마블 4.63, 진로TalkTalk 4.62 순으로 높았으며, 참여학생은 신입생특강 1,444명, 진로TalkTalk 72명, 인사이드아웃 57명 순으로 많았다. 2021년 진로영역 비교과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만족도는 고저스캘린지 4.60, 진로마블 4.55, 진로설정경진대회 4.54 순으로 높았으며, 참여학생은 신입생특강 1,450명, 진로TalkTalk 165명, 인사이드아웃 72명 순으로 많았다.

만족도가 높았던 진로마블, 진로TalkTalk, 진로설정경진대회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자기이해를 통해 진로방향 설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진로유형 진단 결과, 재학생과 신입생 전체 학생의 약 60%가 진로결정수준 또는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유형에 분포되어 이들의 진로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연도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교 자체적으로 비대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입생특강과 진로TalkTalk 같은 특강 프로그램에서 연도별 높은 참여율을 이끌었다.

2020년 취업영역 비교과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만족도는 언니들의 취·성·패 4.74, 교우멘토링 4.73, 공기업 완벽대비 4.65 순으로 높았으며, 참여학생은 테마취업특강 1,184명, 언니들의JOB談 913명, 해외취업특강 653명 순으로 많았다. 2021년 취업영역 비교과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만족도는 면접클리닉 4.87, 취업동아리

4.81, 교우멘토링 4.74 순으로 높았으며, 참여학생은 언니들의JOB談 1,178명, 해외취업특강 863명, 공기업 완벽대비 638명 순으로 많았다.

취업영역에서도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테마취업특강, 언니들의JOB談, 해외취업특강 같은 이러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여 직무역량을 쌓고 취업전략을 계획할 수 있는 면접클리닉, 취업동아리, 교우멘토링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연도별 만족도가 높았다[Table 4].

5. 대학생 진로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

5.1 교육원리 및 기대효과

대학교의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선택적 활동이라는 특징이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어떤 학생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생의 진로 유형별 및

Table 4. Satisfaction Status of Extracurricular Programs

Area	Extracurricular Programs	2020			2021		
		N	M	SD	N	M	SD
Career	Special Lecture for Freshmen	1,444	4.04	0.87	1,450	4.07	0.75
	Inside Out	57	4.61	0.59	72	4.53	0.75
	Career Talk Talk	72	4.62	0.51	165	4.37	0.65
	Career Marvel	27	4.63	0.56	65	4.55	0.59
	Gorgeous Challenge	32	4.84	0.39	27	4.60	0.58
	Career Setting Contest	28	4.54	0.58	28	4.54	0.58
	Total	1,660	4.55	0.58	1,807	4.44	0.65
Employment	Sisters' Job Small Talk	913	4.40	0.72	1,178	4.44	0.67
	Special Lecture on Overseas Employment	653	4.38	0.86	863	4.45	0.71
	Preparation for Public Enterprises	77	4.65	0.53	638	4.55	0.66
	Alumni Mentoring	156	4.73	0.48	236	4.74	0.56
	Theme Special Lecture on Employment	1,184	4.45	0.74	527	4.56	0.60
	Sisters' Employment Success Package	38	4.74	0.45	27	4.70	0.61
	Interview Clinic	43	4.47	0.63	55	4.87	0.34
	Employment Club	59	4.39	0.63	25	4.81	0.49
	Incumbent Mentoring	70	4.51	0.78	37	4.41	0.80
Total	3,193	4.52	0.65	3,586	4.61	0.61	
Total	4,853	4.54	0.62	5,393	4.53	0.63	

층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본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5.2 진로유형별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이차원적 진로 유형별 특성들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효과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탐색장애 등의 척도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9], 대학전공별 연구[31], 진로상당에 대한 기대감 연구[32], 성격, 진로장벽 특징 연구[33], 진로정체감 군집 유형별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에 관한 연구[5], 진로발달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서비스 요구 차이에 관한 연구[6], 진로정체감, 과제접근기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34]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A유형’은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이 모두 높았고,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9]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없으며, 미래불안도 낮게 지각하였다[33].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에 대해 명확하고 모든 영역의 진로서비스 요구가 가장 낮았다[5]. 높은 내적통제성을 보였[31]고, 직업적응 관련 구직기술 요구가 가장 높았다[5]. 취업 이후 조직내 구체적인 갈등 해결 서비스를 요구[6]하며, 자격증 취득에 적극적이고 모의면접과 같은 개입이 필요할 수 있었다[34].

‘B유형’은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9]으로 A유형 다음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친화성은 높고 외향성은 낮았다. 자기명확성, 흥미와 미래불안도가 비교적 낮았다[33]. 진로상당 기대감이 가장 낮고[32], 진로동기가 매우 미비하며 행동으로 잘 나타내지 못했고, 심층적 탐색을 통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보고, 가치관 결정을 위한 개입과 면접과 같은 실천 연습이 필요했다[34].

‘C유형’은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이 낮게 나타났고, 의존적인 의사결정 유형[9]으로 정서적 민감성은 ‘D유형’ 다음으로 높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미래불안도는 높았다[33]. 진로 관련 유연성이 가장 높아서 환경변화에 어려움이 없었다. 자기이해 요구도가 높아서 심층 상담이 필요[34]하며 상담결과 대학에서 경험한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6]하였고, 구직기술과 진로정보 서비스 요구도가 높았다[5].

‘D유형’은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이 낮았고,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9]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 하며, 직업정보, 흥미가 부족하고 미래불안도 높았다[33]. 진로탐색

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가장 낮았고, 진로가 불확실하고 무기력하여 자기이해 요구도가 높았다[6]. 구직기술, 진로정보,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대인관계, 자기관리, 자기이해 순으로 진로서비스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5].

5.3 비교과 프로그램 분류체계의 ‘내용’ 및 ‘활동유형’ 개선안

K대학교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로 및 취업영역으로만 운영하여 진로발달 수준별 맞춤형 진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진로유형별 상이한 진로서비스를 위해 ‘내용’ 분류체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 프로그램과 한국고용정보원 CDP-C 진로프로그램[23]에 대한 선행연구[26]를 근거로 진로 영역은 ‘1.1 자기이해’와 ‘1.2 직업탐색’으로, 취업영역은 ‘2.1 직무역량/직업기초역량’과 ‘2.2 취업전략’으로 세분류하였고, 난이도[35]는 참여도와 이수 순서에 따라 ‘기초’와 ‘심화’로 구분[36]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의 분류체계의 ‘내용’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Table 5].

‘활동유형’ 분류체계는 활동특성[35-37]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역량[17]이 향상을 될 수 있도록 진로유형별 특성에 따라 ‘활동유형’을 특강, 이터닝, 워크숍 등 강의실에서 강사가 다수의 학생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①강의형 활동, 상담, 멘토링, 컨설팅 등 전문가(상담자)와 학생이 고민, 문제 및 과제를 의논하는 ②상담형 활동, 인턴, 현장실습, 해외연수 등 교육을 목적으로 조직이나 현장에서 이론으로 배운 것을 직접 경험해 보는 ③파견형 활동과 마지막으로, 동아리, 공모전, 캠프 등 학생이 다른 조직이나 사람이 기획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④참여형 등의 활동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분류체계 개선안을 ‘내용’과 ‘활동유형’으로 분석하여 이원분류표로 제안하였다[Table 6].

5.4 내용타당성 검증 및 수정 보완

대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대하여 실무담당자 5인(교수1명, 박사2인, 박사수료1명, 석사2명)에게 검토를 받았다. 대학생의 진로유형별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해 볼 때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활동유형이 적절하다는 평가와 고저스챌린지 프로그램은 도출된 분류체계를 토대로 취업영역으로 재분류 되었다. 진로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의 구성 목록이 구성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정리하였다[Table 7].

Table 5. Improvement Plans of the Content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Classification System

Content Classification System			Explanation
Area		Difficulty	
1. Career	1.1 Self-Understanding	A. Basic	
		B. Advanced	
	1.2 Vocation Search	A. Basic	
		B. Advanced	
2. Employment	2.1 Job/Job Competence / Vocational Key Competence	A. Basic	Establishment of desired jobs and reinforcement of necessary competencies Industry and job-related experience(intern, external activities, etc. Participate in training courses related to target industry and job Obtain the required certifications Develop foreign language competence
		B. Advanced	
	2.2 Employment Strategy	A. Basic	
		B. Advanced	

Table 6. Improvement Plans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Classification System

Classification System				Extracurricular Programs
Content			Activity Types	
Area	Difficulty			
1. Career	1.1 Self-Understanding	A	①	1.1.1 Special Lecture for Freshman
		B	②	1.1.2 Inside Out
		A	④	1.1.3 Career Setting Contest
	1.2 Vocation Search	A	①	1.2.1 Career Marvel
		B	②	1.2.2 Career Talk Talk
		A	④	1.2.3 Career Setting Contest
2. Employment	2.1 Job Competence /Vocational Key Competence	A	①	2.1.1 Sisters' Job Small Talk
		B	②	2.1.2 Sisters' Employment Success Package
		B	②	2.1.3 Incumbent Mentoring
		A	④	2.1.4 Gorgeous Challenge
		B	④	2.1.5 Employment Club
	2.2 Employment Strategy	A	①	2.2.1 Special Lecture on Overseas Employment
		A	①	2.2.2 Preparation for Public Enterprises
		B	①	2.2.3 Theme Special Lecture on Employment
		B	②	2.2.4 Interview Clinic
		B	②	2.2.5 Alumni Mentoring

Table 7. Validation Review Opinion

Extracurricular Programs	Review Opinion	Career Type
Special Lecture for Freshman	Self-Understanding area, Difficulty Advanced, Lecture Activity	B, C
Inside Out	Self-Understanding area, Difficulty Basic, Counseling Activity	C, D
Career Setting Contest	Self-Understanding area, Difficulty Advanced, Participation Activity	B, D
Career Marvel	Vocation Search area, Difficulty Basic, Workshop Activity	B, D
Career Talk Talk	Vocation Search area, Difficulty Advanced, Consulting Activity	A, B, C, D
Sisters' Job Small Talk	Job Competence area, Difficulty Basic, Lecture Activity	C, D
Sisters' Employment Success Package	Job Competence area, Difficulty Advanced, Mentoring Activity	A, B, C, D
Incumbent Mentoring	Job Competence area Difficulty Advanced, Mentoring Activity	A, B, C, D
Gorgeous Challenge	Vocational Key Competence area, Difficulty Basic, Participation Activity	C, D
Employment Club	Vocational Key Competence area, Difficulty Advanced, Participation Activity	A, B, C, D
Special Lecture on Overseas Employment	Employment Strategy area, Difficulty Basic, Lecture Activity	C, D
Preparation for Public Enterprises	Employment Strategy area, Difficulty Basic, Lecture Activity	C, D
Theme Special Lecture on Employment	Employment Strategy area, Difficulty Advanced, Lecture Activity	A, B, C, D
Interview Clinic	Employment Strategy area, Difficulty Advanced, Consulting Activity	A, B, C, D
Alumni Mentoring	Employment Strategy area, Difficulty Advanced, Mentoring Activity	A, B, C, D

Table 8. Improvement plans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by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Classification System			Extracurricular Programs	Ideal Type	Pseudo Type	Behavioral Type	Immature Type
Content		Activity Types					
Area	Difficulty						
1.1.1	A	①	Special Lecture for Freshman		○		○
1.1.2	B	②	Inside Out			○	○
1.1.3	A	④	Career Setting Contest		○		○
1.2.1	A	①	Career Marvel		○		○
1.2.2	B	②	Career Talk Talk	○	○	○	○
2.1.1	A	①	Sisters' Job Small Talk			○	○
2.1.2	B	②	Sisters' Employment Success Package	○	○	○	○
2.1.3	B	②	Incumbent Mentoring	○	○	○	○
2.1.4	A	④	Gorgeous Challenge			○	○
2.1.5	B	④	Employment Club	○	○	○	○
2.2.1	A	①	Special Lecture on Overseas Employment			○	○
2.2.2	A	①	Preparation for Public Enterprises			○	○
2.2.3	B	①	Theme Special Lecture on Employment	○	○	○	○
2.2.4	B	②	Interview Clinic	○	○	○	○
2.2.5	B	②	Alumni Mentoring	○	○	○	○

5.5 대학생 진로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안

본 연구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K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유형 진단과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진로유형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을 4개 영역, 2개 난이도, 4개 활동유형으로 진로 유형별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Table 8].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K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유형검사 및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유형을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으로 진단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K대학교의 진로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대학교의 2020년 재학생 1,992명과 2021년 신입생 1,450명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진단 검사에 참여하였고, A유형은 1,347명, 39.1%(재학생 783명, 신입생 564명), B유형 988명, 28.7%(재학생 526명, 신입생 462명), D유형 700명, 20.3%(재학생 415명, 신입생 285명), 407명, 11.8%(재학생 268명, 신입생 139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성별, 학년, 단과대학에 따른 진로유형이 유의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각 유형에 맞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둘째, 비대면 교육이 급격히 등장한 2020년과 비대면과 대면 교육이 병행되었던 2021년 동일하게 운영되었던 6개 진로영역 비교과 프로그램, 9개 취업영역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도별 참여 학생 현황은 2020년 4,853명(진로영역 1,660명, 취업영역 3,193명)이 참여하였다. 2021년 5,393명(진로영역 1,807명, 취업영역 3,586명)이 참여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2020년 4.54, 2021년 4.53이다. 진로영역 만족도는 2020년 4.55, 2021년 4.44이다. 취업영역 만족도는 2020년 4.52, 2021년 4.61이다. 연도별 만족도를 분석한 자료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환류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K대학교의 진로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이차원적 유형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발달수

준, 진로서비스 요구, 과제접근기술 등의 변인에 따른 선행연구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유형별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대학생 진로 유형별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과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이원분류표로 제안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부서는 물론 참여하는 학생 스스로 진로 유형별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내용' 분류체계를 1.1자기이해, 1.2직업탐색, 2.1직무역량/직업기초역량, 2.2취업전략으로 분류 하였고, 난이도는 참여도와 이수 순서에 따라 기초와 심화 단계로, 활동유형 분류체계는 ①강의형, ②상담형 ③과건형 ④ 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진로유형별 특성에 따른 비교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대학생 진로유형별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39.1%의 'A유형'은 직업탐색 1개[1.2.2], 직무역량/직업기초역량 3개[2.1.2], [2.1.3], [2.1.5], 취업역량 3개[2.2.3], [2.2.4], [2.2.5] 등 7개 비교과 프로그램이 구성되며,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28.7%의 'B유형'은 자기이해 2개[1.1.1], [1.1.3], 직업탐색 2개[1.2.1], [1.2.2], 직무역량/직업기초역량 3개[2.1.2], [2.1.3], [2.1.5], 취업전략 3개[2.2.3], [2.2.4], [2.2.5] 등 10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이 낮고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11.8%의 'C유형'은 자기이해 1개[1.1.2], 직업탐색 1개[1.2.2], 직무역량/직업기초역량 5개[2.1.1], [2.1.2], [2.1.3], [2.1.4], [2.1.5], 취업전략 5개[2.2.1], [2.2.2], [2.2.3], [2.2.4], [2.2.5] 등 12개 비교과 프로그램과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20.3%의 'D유형'은 자기이해 3개, 직업탐색 2개, 직무역량/직업기초역량 5개, 취업전략 5개 등 모든 영역의 15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학생 유형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로 인해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마련됨으로써 근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수도권 소재의 대학생으로 표집되어 일반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 유형화 연구의 사례수가 적기에 다양한 표집을 통하여 연구 결과의 안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비교과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진로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대학에서 실제로 운영하면서 수정, 보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니들의 취·성·패와 언니들의 JOB談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은 성별과 무관한 프로그램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E. E. Erikson, "EIdentity: Youth and Crisis", W.W. Norton; 1st edition, 1968, pp.336.
- [2] P. Eggen, D. Kauchak, "Educational psychology: Windows on classrooms(10th ed.)", Pearson; 10th edition, 2015, pp.752.
- [3] M. J. Kim, B. H. Kim,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Career Self-Regula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Rational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7, No.3, pp.27~45, 2014.
- [4] J. H. Kim, "An Analysis of the Educational Needs for the Competencies of Career Development in the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6, pp.359~379, 2012. I410-ECN-0102-2012-330-003102085
- [5] M. J. Park, J. H. Kim, "Differences in the career service needs according to cluster types based on the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of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4, pp.193~208, 2015. DOI: <http://dx.doi.org/10.15703/kjc.16.4.201508.193>
- [6] H. Y. Yoon, E. Y. Jang, & B. N. Park, "Differences in the career service needs according to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 *A Study on Social Sciences in Korea*, Vol.36, No.2, pp.33-65, 2017. DOI: <https://doi.org/10.18284/iss.2017.12.36.2.33>
- [7] E. Ginzberg, S. W. Axelrad, & J. L. Herma,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pp.271.
- [8] D. E Super, D. D. Nevill, "Work role salience as a determinant of career maturity in th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5, No.1, pp.30-44, 1984.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4\)90034-4](https://doi.org/10.1016/0001-8791(84)90034-4)
- [9]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7.
- [10] Y. J. Kim, E. Y. S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Behaviors and Two Dimensional Typology in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3, No.4, pp.1-20, 2010.
- [11] J. Y. Hwang, J. H. Park, "A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Related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4, No.5, pp.73-101, 2015.
- [12] M. S. Jo, K. S. Choi,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8, No.3, pp.1085-1099, 2007. I410-ECN-0102-2012-330-003102085
- [13] Y. J. Lee, K. H. Lee, "Subtype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9, No.2, pp.267-287, 2010.
- [14] S. Y. Park, D. H. Le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2, No.1, pp.23-38, 2013.
- [15] R. W. Lent, S. D. Brown., & G. Hackett,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7, No.1, pp.36-49, 2000.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47.1.36>
- [16] K. R. Bartkus, B. Nemelka, M. Nemelka, & P. Gardner, "Clarifying the Meaning of Extracurricular Activity: A Literature Review of Definitions", *American Journal Business Education*, Vol.5, No.6, pp.693-704, 2012. DOI: <https://doi.org/10.19030/ajbe.v5i6.7391>
- [17] B. K. Lee, E. J. Kim, G. S. Yu, W. K. Lee, & S. C. Chang, "Studies on Extra-curricula Activities in Universities for Globaliz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6, No.4, pp.463-492, 2012.
- [18] C. Ahren, *Disentangling the unique effects of cocurricular engagement on self-reported student learning outcomes*,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Indiana, United States of America, 2009.
- [19] E. Massoni, "Positive effects of extra curricular activities on students". *ESSAI*, Vol.9, No.27, pp. 84-87, 2011. DOI: <https://dc.cod.edu/essai/vol9/iss1/27>
- [20] R. A. Bakoban, & S. A. Aljarallah,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ir effect on the student's grade point average: Statistical study".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Vol.10, No.20, pp.2737-2744, 2015.
- [21] J. P. Wood, S. Little, L. Goldring, & L. Jenkins, "The confidence to do things that I know nothing about- skills development through extracurricular inquiry activity", *Journal of Learning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No.3, pp. 2-21, 2011.

- DOI: <https://doi.org/10.47408/jldhe.v0i3.59>
- [22] T. Parsons, "Social Systems and the Evolution of Action Theory", Free Press, 1977, pp.416.
- [23] Y. Lim, Y. K. Kim, M. H. Kim, H. Y. Oh, & D. S. Choi, Career guidance and labor market implementation, A research repor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Seoul, Korea, pp.43-44.
- [24] K. H. Kim,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university career course*,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65, 2015.
- [25] Y. R. Yoon., "A Study on Effective Teaching Methods regarding Career Subject Classes in College",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2 No.4, pp. 93-106, 2014.
G704-001838.2014.12.4.026
- [26] M. H. Han, *A study to develop and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s*, Ph.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pp.48-49, 2010.
DOI: <https://doi.org/10.23216/dgu.00000038102.11020.0000420>
- [27] S. H. Osipow, G. C. Carney, & A. Barak, "A scale of educational vocational endecideness: A typolp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9, No.2, pp.233-243, 1976. 2014.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76\)90081-6](https://doi.org/10.1016/0001-8791(76)90081-6)
- [28] H. J. Koh, *(A)study on the effect of carc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31, 1993.
- [29] M. J. Kim,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pp.72, 2010.
- [30] M. S. Lee,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pp.79, 2003.
- [31] J. K. Lee, *Comparative study of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evelopment among college major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pp.109, Korea, 1997.
- [32] J. C. Lee, M. J. Park, & J. H. Kim, "Effects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Expectation About Career Counseling Amo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0, No.2, pp.111-128, 2007.
- [33] J. S. Kim, *The career patterning through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basis of personality and career barrier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pp.76, 2012.
- [34] J. Y. Yoon, *Exploring Career Preparation Types and Chara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pp.65, 2020.
- [35] T. J. Yoon S. J. Kim, E. J. Kim, J. Song, & H. J. S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System in Extracurricular Studi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205, 2019.
- [36] K. J. Lee, N. Y. Choi, "A Study on Advancing Classification System for University Extracurricular Programs: The Case of O University", *The Educational research*, Vol.45, No.2, pp.1-22, 2023.
DOI: <https://doi.org/10.35500/JER.2023.45.2.1>
- [37] G. D. Kuh, "The other curriculum: Out of class experiences associated with student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66, No.2, pp.123-155, 1995.
DOI: <https://doi.org/10.2307/2943909>

박 선 주(Seon-Joo Park)

[정회원]



- 2008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5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박사수료)

<관심분야>

진로, 교육훈련, 직업학, NCS